

祝 辭

薛 毓 麒

(駐韓中華民國大使)

大會議長님, 代表여러분, 오늘 第6次 韓中學術會議 開幕式에 초대받아 國土統一院 朴東鎮長官님을 비롯한 學者 여러분, 그리고 貴賓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大會議長님과 朴東鎮長官님께서 하신 開會辭와 祝辭를 통해 韓中兩國의 學術交流 및 共通關心事에 대해 表明하신 깊은 關心과 의미심장한 말씀을 듣고 많은 계시와 격려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회의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大會議長 李相禹 博士님 및 大韓民國 關係學者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적극적 후원을 해주신 國土統一院 關係官들께 깊은 謝意를 表합니다. 또한 이번 會議에 참가하기 위해 來韓한 邵玉銘 博士 및 中華民國 學者여러분들께도 아울러 환영의 뜻을 表합니다.

이번 會議의 主題가 지적해주듯이 韓中兩國 學者들께서 北韓과 中共의 開放化에 대해 깊이있는 討議와 함께 의견 교환을 통해 이와 같은 變化가 일어나게 된 原因背景과 共產政權의 政治, 經濟, 對外關係 및 이데올로기 등에 가져다줄 영향 등을 명확히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는 비단 兩國 學術界가 탐구하고자 하는 問題인 뿐만 아니라, 회의를 통해 얻어지는 成果는 兩國 政府와 國民, 그리고 이 問題를 關心事로 하는 나라들에게도 중요한 기여가 되리라고 確信합니다.

第2次 世界大戰이 終戰된 後, 中韓兩國은 자기 다른 상황에서 國土分

斷이란 비극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30여년 동안 北韓과 中國大陸은 똑같이 共產武力統治에 의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시형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이 地域의 주민들은 불행히도 박해와 공포, 빈곤과 흑사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自由의 땅 韓半島以南 大韓民國과 臺灣地域에 사는 國民들은 大韓民國 政府와 中華民國 政府가 지향하는 “國民의, 國民에 의한, 國民을 위한” 政治理念에 따라 自由, 民主, 平和 그리고 繁榮된 社會를 건설해왔습니다.

이 30여년의 歷史는 바로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있는 세가지 眞理를 現實이 說明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北韓과 中共은 共產主義를 실시했던 기타 지역과 같이 제도 자체에 있어서는 이미 철저히 실패했으며 폭력과 강압으로 겨우 政權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의 國家 또는 하나의 民族 속에서 半은 自由를 누리며, 半은 노예화하는 다른 제도가 영원히 共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國土統一은 韓中兩國 國民이 다같이 포기할 수 없는 소망인 것입니다. 셋째로 國土統一의 意義는 필연적으로 전체국민으로 하여금 平和, 自由, 民主 그리고 번영된 복지생활을 공히 누리게 하는데 있는 것이며, 결코 더 많은 國民으로 하여금 빈곤과 고통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최근 北韓과 中共은 여러가지 복합적인 原因으로 인해 “開放政策”을 구호로 하고 있으며, 開放政策으로 전환할 것 같은 자세를 취하므로 世界各國이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韓中兩國의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共產主義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같은 變化가 일어나게 된 要因과 影響에 對해 명확한 認識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제간의 일반 관측통에서도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北韓과 中共이 이같은 새로운 政策을 펼치게 된 目的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진정 國民生活을 개선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통제강화로 이미 불안정한 政權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를 의문입니다. 둘째로 對外經濟協力을 위해 과연 共產主義 이데올로기를 수정할 것인지, 아니면

自由世界の 資本과 技術을 흡수하는 한편,北韓 金日成 父子의 세습독재와 中共이 “四個堅持” 政策을 계속할 것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셋째로 그들이 과연 평화적 수단으로 國土統一의 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韓中兩國 國民의 反共意識을 약화시켜 그들의 대외침투와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여 결정적 시기에 武力으로써 全國土를 一舉에 赤化하겠다는 속셈인지 하는 의문들입니다. 이같은 의문들이 바로 이번 韓中學術會議 討議過程에서 뚜렷한 해답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지난 다섯차례에 걸친 韓中學術會議에서 많은 成果가 있었듯이, 이번 第6次 會議도 여러 學者들의 협력으로 더욱 큰 成果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끝으로 會議의 원만한 성공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축원합니다.